전남대 총장직선 존폐투표 돌입

오늘부터 8일간…전임강사 이상 교수 대상

전북대는 폐지 결정

전남대학교가 26일 총장 직선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는 8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전북대가 24일 투표를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전남대 투표 결과에 대학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대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38개 국립대 가운데 34개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을 전후로 찬반 투표를 거쳐 경북·부산·목포대 등 3개 대학이 직선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전남대만이 유일하게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총장 직선제 존폐를 묻는 투표를 실시, 총장후보 직선추천제 폐지를 결정했다. 전임교수 이상 유권자 974명 중 914명(93.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직선제 폐지 찬성이 481표(53.4%), 반대가 419표(46.6%)로 나타나 직선제 폐지가 결정됐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 일부 보직교수들은 그동안 총장직선제를 유지해도 결국에는 강제 폐지당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되는 등 대학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호소했다.

전북대는 이달 안으로 학칙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고와 심의절차를 거쳐 총장후보 직선추천제도를 폐지한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해 일부 구성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여전한 상태다.

38개 국립대 중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4개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학과 동창회를 중심으로 상당수 대학 구성원들은 직선제 폐해에 공감하며 폐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남대 평의원회는 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전임강사 이상을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여전히 직선제 유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김윤수 총장이 단과대학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를 설득하는 한편 총동창회도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대와 경북대는 찬반투표에서 직선제 폐지가 부결됐으나 각 대학 집행부가 직선제 폐지 여론을 조성 중에 있으며,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6월21일부터 28일까지 총장 직선제 존치 및 개선을 묻는 투표에서 교수들의 과반수가 '직선제를 존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자치 조례 철회하라"

광주교총 "교육 당사자간 갈등 조장 우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효영·이하 광주교총)가 전교조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주민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장의 학교운영권한을 제한하고, 교육당사자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광주교총은 25일 "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의한 학교자치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 당사자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회 등이 기존 법률로 운영중인데도 이를 조례로 해결하려는 '조례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 자치기구 구성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학교에서 자율 시행중인 만큼 입법화 취지도 약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총은 "이 조례가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규정한 반면 학교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교장의 권한은 없다"며 "현재는 교장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지게돼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광주교총 의견을 광주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전교조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 추진본부'(상임대표 임추섭)는 학교에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 의결할 교무회의를 두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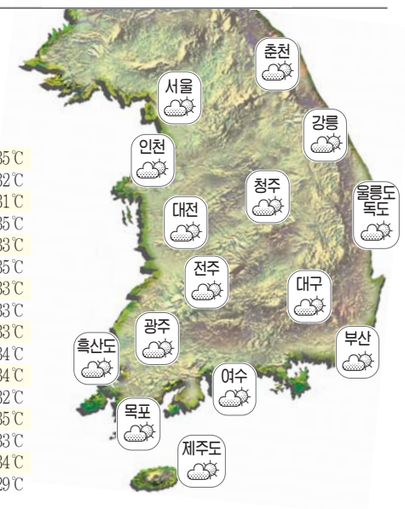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7분 / 해짐 19시 41분 — 달뜸 12시 48분 / 달짐 23시 42분

더워요!

찜통더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 주	구름조금	25/35℃
목 포	구름조금	24/32℃
여 수	구름조금	24/31℃
나 주	구름조금	24/35℃
완 도	구름조금	23/33℃
구 례	구름조금	24/35℃
강 진	구름조금	23/33℃
해 남	구름조금	23/33℃
장 흥	구름조금	23/33℃
순 천	구름조금	23/34℃
영 광	구름조금	24/34℃
진 도	구름조금	23/32℃
전 주	구름조금	24/35℃
군 산	구름조금	24/33℃
남 원	구름조금	23/34℃
흑산도	구름조금	24/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매우높음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6:49 19:38	12:12 00:00
여수	01:26 14:20	07:37 20:27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날 씨						
최저/최고	25/34	25/34	25/34	26/33	24/34	24/35

광주교육청, 고3 방학중 '야자' 전면 허용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중에 밤 10시까지 교실에서도 자율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애초에 자율학습 장소를 학교 도서관으로 한정했으나, 자율학습 참여학생들의 숫자가 도서관 수용인원을 넘을 경우 교실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남아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3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서관과 일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1,2학년은 기존 방침대로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공부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도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수능과 모의고사 성적 하락 등으로 학력저하 우려가 확산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교육청이 도서관에서만 자율학습을 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을 도서관으로 변조해 학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했었다. 도서관이 비좁은 탓에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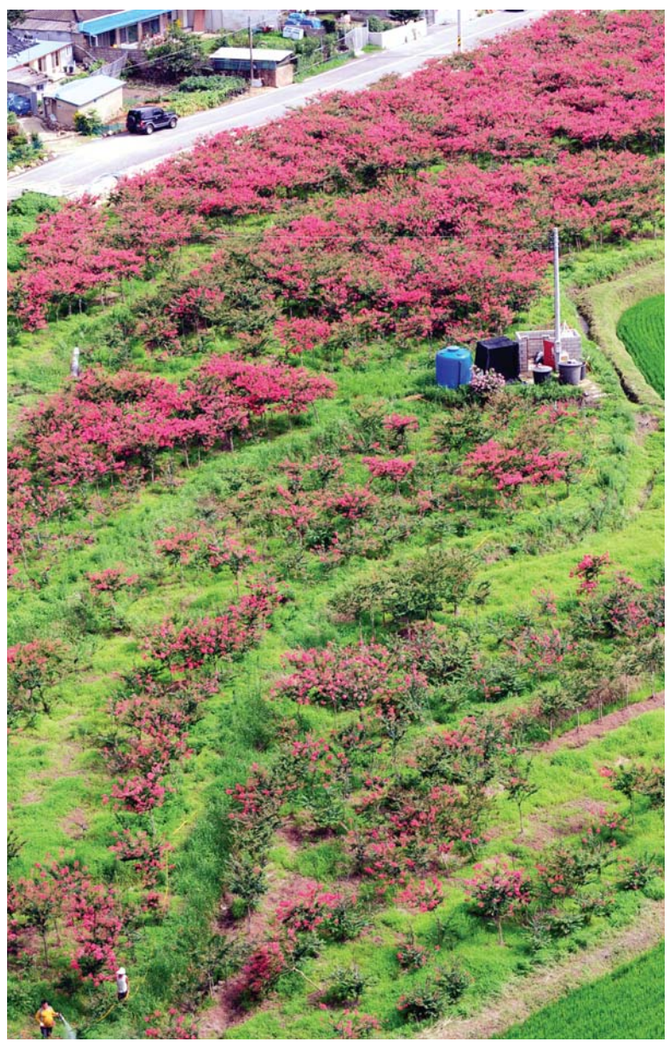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기 중 야간 자율학습 지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평일 전체 학년의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다. 일요일에는 전학년의 자율학습이 금지되고 도서관 개방도 안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시지원 6회 제한' 첫 위반 사례

올해 치르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부터 수험생에게 '지원 횟수 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된데 따른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13일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의 대학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험생의 '묻지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 6회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수시 1차와 2차, 동일 대학 내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 입학원서를 6장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수험생은 대교협의 '대입 지원정보 서비스(applys.kcue.or.kr)' 코너에서 수시지원 현황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들판 수놓은 백일홍 잔치 화순군 화순읍 교리 서라아파트 앞 들판이 붉게 핀 백일홍으로 물들었다. 25일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교리 들판이 붉은 꽃과 푸른 풀밭으로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자수를 보는 듯 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모 사랑받은 아이 휴대전화 집착 덜 한다

중1 2351명 설문

부모의 존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휴대전화 의존증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청소년학과의 박사과정생인 김영민씨는 같은 대학 임영식 교수와 함께 '한국 청소년 · 아동조사(K-CYPS)' 중 중학교 1학년생 2351명의 설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민주적 가정에서 컸다' '휴대전화에 의존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등 답변을 할 확률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방법으로 관측했다.

이 모델은 확률 간 관계를 '표준화계수(β값)'로 표현한다. β값이 양(+)이면 한 확률이 증가할 때 다른 확률도 커지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이 결과 '민주적 양육'은 휴대전화 의존율에 미치는 β값이 -0.2였다. 민주적 가정에서 자랄 확률이 1단위 증가하면 휴대전화에 몰입할 확률이 0.2만큼 낮아진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동구청 교과부 장관상

광주시 동구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모전'에서 일반 단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동구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전국 최초 학교사랑 지역협의회 신설 운영, 유관기관과 협조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과부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백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 구)도청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